



주한 벨라루스 대사관

뉴스레터

Comments

by H.E. Mr. Sergei POPKOV, Minister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zation of the Republic of Belarus

일자: 2014 년 10 월 2 일 (수)

총 페이지 수: 2

보내는 사람: 주한 벨라루스 대사관

홍보 담당: 드미트리 도로세비치 영사

02) 2237-8171

Comments

by H.E. Mr. Sergei POPKOV, Minister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zation
of the Republic of Belarus



2014년 9월 24일 최양희 한국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벨라루스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향후 벨라루스와 한국 간의 ICT 분야 협력 발전, 첨단 산업 시설 건설 및 ICT 분야 합작회사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벨라루스는 ICT 산업 발전을 우선 국가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화사회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광역 통신망을 통한 새로운 ICT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 ICT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에는 모바일 통신망과 인터넷 보급률이 높으며 통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급 IT 전문 인력이 풍부합니다.

현재 벨라루스 정부는 '2011 - 2015년 정보통신기술 분야 서비스 활성화 촉진 국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 정보화 인프라의 빠른 발전 속도 유지를 위해서는 '2016-2022년 정보화 추진 전략'이 구상 중입니다. 양국간 합의에 따라 본 전략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 점이 진심으로 기쁩니다.

벨라루스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위한 꾸준한 노력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낳았고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ITU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정보화사회 평가»에서 벨라루스는 전년 대비 5위 상승하여 4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까지 30위 안에 드는 것을 국가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ITU 통계에서 순위가 높기 때문에 한국을 ITU 사업 성공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UN 전자정부 평가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2014년 193개국 중 전년의 61위에서 55위로 올랐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부는 국내 정보통신기술 개발에 우선적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에서의 '하이테크파크' 창립이 ICT 발전을 위한 좋은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대통령령에 의해 하이테크파크 입주 업체는 여러가지 특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이테크파크의 특혜와 벨라루스 전문가들의 폭넓은 S/W 개발경험은 한국 ICT 업체들의 투자 유치를 위한 좋은 입지를 형성하였습니다. 최양희 장관님 방문 기간 내 SK 하이닉스 사무실과 '정보화진흥원' 후원으로 개설된 '정보접근센터' 개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한국 업체들이 벨라루스 시장에 진출하고 양국 ICT 협력 잠재력과 양국간 우호 관계를 감안한 양국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기를 바랍니다.

2013 년 컴퓨터 관련 서비스 수출이 전년 대비 135% 성장하여 5.5 억불을 초월했다는 것도 벨라루스 ICT 시장 성장의 성과입니다. 이 중 하이테크파크 입주 업체가 차지한 비중은 약 4.46 억불로 전체의 80%입니다. 하이테크 파크 입주업체에 특혜 제공에 대한 대통령령이 서명된 2005 년 대비 벨라루스 전체 용역 수출액 중에 컴퓨터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1%에서 7.5%까지 상당한 성장을 보였으며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상당히 큽니다.

또한 벨라루스 통신정보화부와 한국 미래창조과학부 간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에 관한 MOU'와 벨라루스 통신정보화부와 한국 정보화진흥원 간의 '정보화 분야 협력에 관한 MOU'가 벨라루스 ICT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벨라루스-한국 ICT 협력 잠재력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양국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데 항상 개방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한국 업체와의 많은 새로운 ICT 분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